



보험회사의 해외진출 지원 방안

전용식 연구위원, 김유미 연구원

-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점포는 지난해에 비해 양적으로 감소하였으나 보험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확대되어 2010년 이후 8년 만에 당기순이익이 흑자를 기록함
 - 2018년 기준 우리나라 10개 보험회사(생명보험 3개사, 손해보험 7개사)의 해외점포 수는 82개로 지난해보다 3개 감소하였으며 사무소 40개, 현지법인 32개, 지점 10개가 진출해 있음
 - 보험영업이익 규모는 2,350만 달러로 전년 대비 크게 증가(4,930만 달러)하였고, 당기순이익은 전년 2,090만 달러 적자에 비해 4,460만 달러 증가한 2,370만 달러를 기록함
- 해외사업 성과가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글로벌 보험회사들에 비하면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해외사업 비중은 미미함
 - 2017년 Fortune Global 2000 기업 중 109개 보험회사 가운데 해외사업을 수행하는 회사들의 해외사업 비중은 자산기준으로 생명보험 41.6%, 손해보험 28.6%, 겸업 보험회사 51.5%이지만, 우리나라 보험회사들의 경우 생명보험 0.50%, 손해보험 1.80%임
- 국내 시장의 포화상태를 고려하면 해외로 사업영역을 확대해야 하지만 국내 보험회사들이 직면하고 있는 경영환경은 해외사업 유인을 약화시키고 있음
 - IFRS 17, K-ICS 등 지급여력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국내시장에서 창출하는 수익도 감소하고 있어 해외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고 있음
 - 현지에 판매채널, 보상조직 등 보험사업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소요되기 때문에 현지법인 설립 유인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임
- 해외사업 유인 약화로 현지법인 설립보다는 현지 보험회사에 대한 지분투자가 확대되고 있는데, 보험회사의 지분투자, 인수·합병을 위해서는 보험회사의 자금조달 등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함
 -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국에 비해 우리나라 보험회사들의 채권발행 목적과 규모에서 제약이 있음
 - 해외사업의 비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보험회사의 해외진출 시 현지의 업무대행대리(MGA)나 업무관리 대행사(TPA) 등에게 업무 위탁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1. 검토배경



-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진출 관련 정보 제공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정부의 신 남방정책 추진 등으로 국내 금융회사의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으로의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역할을 확대하고 해외진출 시 적격성 심사정보의 제공 및 해외감독당국과의 교류·협력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
 - 금융중심지지원센터에서는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을 위해 2014년부터 주요 국가의 금융산업 및 금융규제 동향, 국내 금융회사 진출 현황 등의 정보를 국가별로 제공하고 있음
 - 동남아시아 국가의 금융 감독 당국과의 교류 확대를 위한 방안도 모색하고 있음
- 국내 시장의 성장성 정체로 인하여 해외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지만 보험회사의 해외사업 실적은 정체되어 있음
 -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1.7% 감소할 것으로,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은 연평균 0.4%로 정체될 것으로 전망됨
- 본고에서는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사업 현황을 검토하고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언하고자 함
 - 2018년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사업 실적을 검토하고 2017년 Global Fortune 2000에 포함된 주요국 보험회사들의 해외사업 성과를 비교하여 국내 보험회사들의 해외사업 현황을 검토함
 -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함

2.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진출 현황



가. 해외점포 현황

- 2018년 기준 우리나라 10개 보험회사(생명보험 3개사, 손해보험 7개사)의 해외점포 수는 82개로 지난해보다 3개

감소하였으며 사무소 40개, 현지법인 32개, 지점 10개가 진출해 있음

- 생명보험회사 해외점포 수는 24개로 사무소가 14개, 현지법인이 10개이며,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이 진출해 있음
- 손해보험회사의 해외점포 수는 58개로 사무소가 26개, 현지법인 22개, 지점 10개이며,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코리안리, 서울보증보험이 진출해 있음

〈표 1〉 형태별 국내 보험회사 해외점포 현황

(단위: 개, %)

구분	사무소		영업소		현지법인		지점		합계
생명보험	14	(58.3)	10	(41.7)	10	(41.7)	-	-	24
손해보험	26	(44.8)	32	(55.2)	22	(37.9)	10	(17.3)	58
계	40	(48.8)	42	(51.2)	32	(39.0)	10	(12.2)	82

주: 현지법인은 자본율 50% 이상 또는 사실상 경영권을 지배하는 경우임

자료: 금융감독원(2019. 1), 「'18년 12월 말 현재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현황」

■ 국가별로는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 지역(64.6%), 아메리카(22.0%), 유럽(13.4%) 순으로 진출해 있으며, 업종별로는 보험업이 31개, 투자업이 4개임

- 높은 성장가능성, 인프라 확충을 위한 금융수요 증가 등으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지역으로의 진출이 증가하고 있음
 - 최근에는 정부의 신 남방정책 추진에 따라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으로의 진출이 확대되고 있으며, 2018년 기준으로 17개(생명보험 4개, 손해보험 13개) 점포가 진출해 있음¹⁾
- 보험업의 경우 손해보험 21개, 생명보험 3개, 보험중개업 등이 7개로 손해보험 영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투자업의 경우 금융투자업 3개, 부동산임대업 1개임

1) 금융감독원(2019. 4. 19), 「국내 금융회사의 신남방 진출 현황 및 지원 방안」

〈표 2〉 지역별 국내 보험회사 해외점포 현황

(단위: 개)

지역		생명보험	손해보험	지역		생명보험	손해보험
아시아	중국	6	11	아시아	UAE	-	3
	베트남	3	8		말레이시아	-	1
	홍콩	1	1		태국	-	1
	인도네시아	1	4	아메리카	미국	4	13
	미얀마	-	3		브라질	-	1
	일본	3	3	유럽	영국	4	6
	인도	-	1		독일	-	1
	싱가포르	-	3	기타	러시아	-	1

자료: 금융감독원(2018. 11), 「Country Brief 2018」

나. 해외점포 재무 현황

■ 2018년 기준 국내 보험회사 해외점포 총자산은 45억 8,900만 달러, 총부채 26억 1,700만 달러, 총자본 19억 7,200만 달러임

- 해외점포 총자산은 45억 8,900만 달러로 해외진출 보험회사 총자산(777.7조 원)의 0.7% 수준이며, 점포 청산 및 보험금 지급 등으로 전년 대비 2억 3,800만 달러 감소함
- 총부채는 책임준비금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억 1,600만 달러 감소하였고 총자본은 점포 청산 등으로 전년 대비 1억 2,200만 달러 감소함
- 당기순이익은 전년 2,090만 달러 적자에 비해 4,460만 달러 증가한 2,370만 달러를 기록함
 - 보험영업이익 규모는 2,350만 달러로 전년 대비 크게 증가(4,930만 달러)하였고 투자영업이익 규모는 20만 달러로 소폭 축소(470만 달러)됨

〈표 3〉 국내 보험회사 해외점포 재무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7년			2018년			증감		
	보험업	투자업	합계	보험업	투자업	합계	보험업	투자업	합계
자산	3,788	1,039	4,827	3,794	795	4,589	6	-244	-238
부채	2,668	65	2,733	2,573	44	2,617	-95	-21	-116
자본	1,120	974	2,094	1,221	751	1,972	101	-223	-122

주: 보험업·보험중개업·금융투자업·부동산임대업 영위 30개 점포(지점 포함)를 대상으로 분석(보험업 관리법인 및 사무소 성격의 점포 5개 제외)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9. 4. 29), “2018년 보험회사 해외점포 영업실적”

3. 국제 비교



- 국가별 보험산업의 해외사업 비중을 추산하기에는 자료의 제약으로 어려움이 있어 Fortune Global 2000 기업에 포함된 주요국의 대형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해외사업 비중 등 경영지표를 분석함
 - 대형 보험회사들은 국가별로 선도(Leading) 보험회사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가별 비교에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 해외사업 비중은 각 보험회사의 총자산 중 해외법인, 지점, 사무소 등이 보유한 자산의 비중으로 집계함
 - 전체 보험료 대비 해외사업 보험료 비중으로 해외사업 규모를 추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자료의 제약으로 자산비중으로 대체함
- 2017년 Fortune Global 2000 기업 중 109개 보험회사를 분석한 결과 생명·손해보험 겸영 및 기타 금융업을 겸업하는 다각화된 보험회사(이하, '겸업 보험회사')의 해외사업 비중이 20.8%로 높게 나타남(〈표 4〉 참조)
 - 보험회사들의 유형은 겸업 보험회사,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중개사 등으로 구분됨
 - 겸업 보험회사는 47개, 생명보험회사는 35개, 손해보험회사는 24개, 중개사는 3개 회사임
 - 겸업 보험회사는 생명, 손해, 기타 금융업을 겸하는 회사들임
 - 손해보험회사의 평균 자산규모는 493억 달러, 매출액 171억 달러, 평균 해외사업 비중은 15.5%임
 - 반면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평균 자산규모는 2,765.7억 달러, 매출액 304.7억 달러, 해외사업 비중은 11.9%임
 - 겸업 보험회사의 평균 자산규모는 1,786억 달러, 매출액 252억 달러, 평균 해외사업 비중은 20.8%임
- 국가별로는 미국 28개, 영국과 버뮤다 각각 8개, 우리나라 7개, 캐나다, 중국, 스위스, 일본 각각 6개 보험회사가 Fortune Global 2000에 포함됨
 - 버뮤다 지역은 조세혜택 등으로 글로벌 보험회사들이 회사 소재지로 선택하는 경향이 있음
 - 국내 보험회사들은 생명보험 2개, 손해보험 4개, 겸업 보험회사 1개임
 - KB Insurance는 금융그룹 계열 보험회사로 분류되어 다각화된 보험회사로 구분됨
- 해외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보험회사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해외사업 비중은 미미함(〈표 4〉 참조)

- 분석대상 보험회사들의 해외사업 비중은 생명보험 11.9%, 손해보험 15.5%, 겸업 보험회사 20.8%이지만 우리나라 보험회사들의 경우 생명보험 0.25%, 손해보험 0.89%임
- 분석대상 보험회사들 가운데 해외사업을 수행하는 회사들의 해외사업 비중은 생명보험 41.6%, 손해보험 28.6%, 겸업 보험회사 51.5%이지만 우리나라 보험회사들의 경우 생명보험 0.50%, 손해보험 1.80%임

〈표 4〉 분석대상 보험회사 현황

(단위: 십억 달러, %)

구분	생명보험	손해보험	겸업보험회사	합계
회사 수	35	24	47	109
총자산	276.5	49.3	178.7	177.2
매출액	30.5	17.1	25.3	24.7
전체 해외사업 비중	11.9	15.5	20.8	17.5
국내 7개 보험회사 해외사업 비중	0.25	0.89	0.0	0.58
해외사업 회사 수	10	13	19	44
해외사업 회사들의 해외사업 비중	41.6	28.6	51.5	43.3
국내 보험회사 중 해외사업 추진 보험회사의 해외사업 비중	0.50	1.80	-	1.35

주: 2017년 Global Fortune 2000 기업 중 주요 국가별 보험회사 자료

- 우리나라 손해보험회사의 해외사업(자산) 비중은 1.8%에 불과한 반면 캐나다, 영국, 일본, 미국 손해보험회사의 동 비중은 각각 66.0%, 51.6%, 41.0%, 18.4%임

- 해외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회사들을 대상으로 집계함
- 노르웨이, 호주, 스위스, 미국의 경우 해외사업 비중과 자산이익률(ROA) 간에 정의 관계를 보이지만 캐나다, 영국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ROA가 낮게 나타남
 - 손해보험업은 재난, 재해 등 대규모 손해가 발생할 경우 수익성이 악화되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나타날 수 있음
- 해외사업 비중이 1.8%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ROE는 11.3%인데 미국, 영국, 일본 손해보험회사들의 ROE는 높은 해외사업 비중에도 불구하고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주식시장에 상장된 회사이므로 시가총액을 볼 수 있는데, 해외사업 비중이 높은 캐나다, 호주, 일본, 스위스, 미국의 시가총액은 우리나라 손해보험회사 시가총액보다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남

〈표 5〉 국가별 손해보험회사의 해외진출 비교

(단위: 십억 달러, %)

구분	회사 수	자산규모	해외자산 비중	ROA	ROE	시가 총액
호주	1	22.7	23.0	3.1	13.9	10.6
캐나다	1	43.4	66.0	-1.3	-6.6	11.2
일본	3	166.8	41.0	1.2	8.5	21.4
노르웨이	1	18.2	21.0	3.0	18.9	7.4
한국	2	43.7	1.8	1.2	11.3	6.4
스위스	1	159.8	28.9	2.6	8.6	64.0
영국	1	26.1	51.6	0.2	1.4	7.5
미국	3	53.2	18.4	1.9	9.2	19.9

주: 2017년 Global Fortune 2000 기업 중 주요 국가별 보험회사 자료

■ 생명보험의 경우 Fortune Global 2000의 35개 회사 중 9개 회사의 해외사업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생명보험회사보다 자산규모가 작은 캐나다, 홍콩, 네덜란드 생명보험회사의 해외사업 비중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캐나다의 경우 자산규모는 1,925억 달러이지만 해외자산 비중은 65.0%, 자산이익률(ROA), 자기자본이익률(ROE)은 각각 1.0%, 12.8%로 나타남
- 홍콩 소재 AIA Group도 자산규모는 1,851억 달러로 우리나라 생명보험회사의 자산 2,197억 달러에 비해 작지만 해외자산 비중이 61.0%, ROA 2.3%, ROE 11.9%임

〈표 6〉 국가별 생명보험회사의 해외진출 비교

(단위: 십 억 달러, %)

구분	회사 수	자산규모	해외자산 비중	ROA	ROE	시가 총액
캐나다	1	192.5	65.0	1.0	12.8	21.9
홍콩	1	185.1	61.0	2.3	11.9	77.1
일본	1	466.4	23.2	0.5	7.6	19.9
네덜란드	1	177.8	49.2	0.7	5.3	10.3
한국	1	219.7	0.5	0.8	8.0	18.2
스위스	1	196.6	33.4	0.5	7.0	10.2
대만	1	251.3	69.3	0.6	9.3	19.8
영국	2	408.5	37.1	0.3	11.8	31.4
미국	1	784.0	40.7	0.6	9.5	45.6

주: 2017년 Global Fortune 2000 기업 중 주요 국가별 보험회사 자료

4. 결론



- 국내 보험회사 해외점포의 자산규모는 아시아 신흥국을 중심으로 확대추세에 있으나 수익 증가 폭은 크지 않음
 - 당기순이익 규모는 손해율 개선과 투자이익 증가 등으로 2010년 이후 8년 만에 흑자 전환하였으나 현지화 전략 부재, 높은 진입규제 및 낮은 인지도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 국내 시장의 포화상태를 고려하면 해외로 사업영역을 확대해야 하지만 국내 보험회사들이 직면하고 있는 경영환경은 해외사업 유인을 약화시키고 있음
 -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해외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주요국 보험회사에 비해 사업 규모가 미미하고 해외사업을 하는 보험회사와 그렇지 않은 보험회사의 수익성에서도 격차가 있음
 - 해외사업이 있는 44개 보험회사의 평균 ROA는 1.21%, ROE는 8.73%인 반면 해외사업이 없는 65개 보험회사의 평균 ROA는 0.87%, ROE는 8.36%임
 - 해외사업이 있는 3개 국내 보험회사의 평균 ROA는 1.06%, ROE는 10.2%이며 그렇지 않은 보험회사의 평균 ROA는 0.48%, ROE는 7.16%임
 - IFRS 17, K-ICS 등 지급여력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국내시장에서 창출하는 수익도 감소하고 있어 해외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고 있음
- 지급여력 규제 강화, 수익 감소로 인해 보험회사 단독으로 자점·법인을 설립하기보다는 현지 금융회사와의 합작·지분투자가 확대되고 있음²⁾
 - 현지에 판매채널, 보상조직 등 보험사업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소요되고 국내 경영성과도 악화되고 있어 해외사업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합작 및 지분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지분투자 확대의 원인은 지분투자를 통해 현지 보험시장을 파악하고 현지에서의 성공 가능성을 확인한 후 지분투자 확대, 현지 보험회사 인수합병, 법인 설립 등으로 사업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지분투자, 현지 보험·금융회사 인수·합병을 위해서는 보험회사의 자금조달 등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함
 - 일본은 피인수 회사의 업종 제한을 완화하였고 자금조달의 경우 후순위채 발행에 대한 목적 제한을 두지 않음

2)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9. 4. 29), “2018년 보험회사 해외점포 영업실적”

- 해외사업 유인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지급여력제도에 반영될 필요가 있음
 - 해외사업을 확대하여 보험회사의 위험을 지역적으로 분산할 경우, 위험분산 효과를 지급여력제도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표 7〉 주요국 보험회사 채권 발행 요건 및 한도

구분	발행목적에 대한 제한	채권 발행한도
한국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하거나 적절한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반면 은행, 증권회사는 발행목적 제한 없음)	직전 분기 말 현재 자기자본의 범위 (은행의 경우 자기자본의 3배 이내, 증권은 순자산액의 4배 이내)
미국 (뉴욕 주)	차입에 대한 일정조건을 제시하고 있으나, 자금조달의 요건과 성격을 명료하게 하여 폭넓게 허용	가용자본으로 인정되는 채권(Capital Notes)의 경우 한도규제 있음(Section 1323)
영국	법적인 제한 없음	제한 없음
프랑스	법적인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일본	법적인 제한 없음	단기차입의 경우만 한도 제한

자료: 조영현·조재린(2015), 『재무건전성 규제강화와 생명보험회사의 자본관리』, 보험연구원

■ 또한 금융기관 업무위탁 규정 개정을 통해 보험회사 해외진출 시 업무 위탁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함³⁾

- 해외 보험시장에서 활성화된 업무대행대리(MGA)나 업무관리대행사(TPA) 등과 같은 전문업체를 활용하면 보험회사의 해외진출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임
- 보험업의 핵심 업무 범위에 포함되더라도 보험회사의 업무 효율성을 고려하여 업무위탁을 폭넓게 허용할 필요가 있음 **kiri**

3) 이승준·정인영(2017), 『보험회사 업무위탁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보험연구원